

보도시점 (전매체) 11.25.(월) 14:00

오영주 장관, 생명분야(바이오) 생태계 주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 의지 확인

- 대학,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제약기업, 협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 제시된 의견은 중기부의 (가칭) “생명(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에 반영키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25일(월) 서울 가톨릭병원 옴니버스파크에서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바이오 전문가들과 국내 바이오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 (일시 및 장소) '24.11.25(수) 14:00~15:15, 입셀(서울 서초구 가톨릭병원 옴니버스파크)
* 기업 실험실 등 현장 방문(15분) → 간담회(60분)
- ▶ (참석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지현 입셀 대표, 최창훈 드노보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 김명기 LSK 인베스트먼트 대표, 박정규 서울대 의대 교수, 이영미 유한양행 부사장,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생명(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생태계 전반의 혁신 주체들과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으며 국내 생명(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서 의미가 있다.

간담회에서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가 국내 생명(바이오) 생태계의 현황(편더멘탈)을 진단하였고 이후 제약 분야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과 K생명(바이오)의 미래성장에 대한 참석자들의 자율 논의로 이어졌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중기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칭)생명(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오 장관은 가톨릭병원 내에 위치한 생명(바이오)벤처 ‘입셀’을 방문하여 연구실, 세포 보관실, 국내 최초 유도만능줄기세포 (iPSC*) 지엠피(GMP) 시설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 논란이 있는 배아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배양환경에서 무한히 자기 복제할 수 있고 모든 세포 유형으로 분화가 가능

입셀은 중기부가 초격차스타트업으로 선정한 기업으로,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해외실증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내년엔 일본에서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기반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세계(글로벌) 시장 환경과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생명(바이오) 벤처의 혁신과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생명(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담당자	사무관	장희수 (044-204-7193)

